

2010 광주비엔날레
66일 대장정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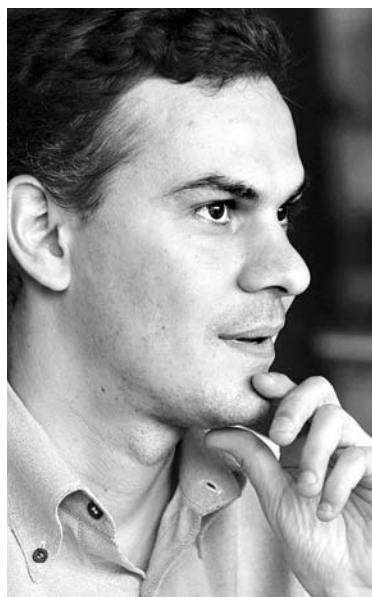
7일 폐막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국내외 관람객 33만명이 다녀갔으며 어린이 단체 관람객들도 줄을 이었다.

예술적 성공, 지역발전으로 연계해야

유료 관람객 33만명... 외국인 2만8000명
지역작가 육성·장기 발전 방안 속제로 남아

고은 시인의 연작시 '만인보'를 주제로 차용한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66일간 여향 광주를 현대미술로 물들였다.
인류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다양한 정의와 양상이 화려한 작품을 통해 논의되고, 해외 전문가·언론의 찬사도 이어졌다.

단체 관람객은 9만6289명(29%)으로 지난 7회 행사 때의 11만4000여명(전체 35만6000여명 중 35%)보다 1만8000여명 감소했다.
또 양동시장에서 펼쳐진 특별프로젝트 '시장 속의 비엔날레'와 시민참여프로그램 '만인보+1'전이 열린 광주 도심 25개 전시장에는 16만3천여명의 관람객이 이어졌다.



"광주비엔날레 세계적 영향력 커질 것"

"광주비엔날레는 이미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성장했고, 앞으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를 총 지휘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100년 동안의 작품을 모아 작은 역사 박물관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즐겨 찾는 광주비엔날레의 차별성에서 향후 성공 가능성을 찾았다.
그는 "서구의 경우 관람객들이 미술 관계자들로 한정돼 있지만 광주비엔날레는 미술과 관계되지 않은 다양한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광주비엔날레가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악 보따리를 풀어라

전남대 국악과 8~12일 '국악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학과장 안희봉·사진) '국악제'가 8일~12일 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에서 열린다.
8일 열리는 교수연주회에서는 성애순·김광복·전인삼·문명자·방성춘·주소연씨 등이 출연해 가야금병창, 피리독주, 판소리, 남도민요 등을 들려준다.

서는 전인삼(연출), 주소연(작창), 서영(안무)씨 등의 지도로 창극 '하녀 심청'을 무대에 올린다.
그밖에 11일과 12일은 대학원 연주회와 동문음악회로 꾸며진다.
박선호·김명남·황승욱·홍운진씨 등이 출연해 실내악 '아름다운 인생', 가야금 병창 '심청가' 중 '화초타령', 아쟁협주곡 '어두운 하늘' 등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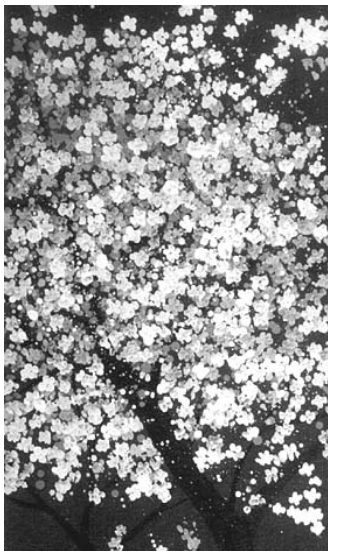


무수한 점들... 공간에 대한 재해석

서양화가 김혁정씨 17~23일 서울서 개인전

중견 서양화가 김혁정씨가 오는 17일~23일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부남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매화와 백일홍을 소재로 한 연작과 공간에 대해 재해석한 신작을 선보인다.
밤 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공간의 대화' 연작은 무수한

점들을 통해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전남대 미술 교육과를 졸업한 뒤 파리 소르본느 제1대학 조형미술학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광주, 서울, 프랑스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문의 02-720-036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매화 I'

남도소리·화요예술무대

광주문예회관 작품공모

광주문예회관은 2011년도 남도소리 상설무대와 화요예술무대 작품을 공모한다.
남도소리 상설무대는 창극, 판소리, 무용, 풍물 등 전통국악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화요예술무대는 음악, 무용,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가 참여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과 광주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선정된 작품은 공연장 무료 대관, 회관 무대 시설·기계·장비 지원·공연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문의 062-510-92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6일 프랑스문화원 '보졸레 누보 파티'

"2010년산 핫포도주 맛보세요."
광주프랑스문화원(원장 최승은)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문화원에서 제12회 보졸레 누보 파티를 개최한다.
보졸레 누보 파티는 매년 11월이면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되는 신선한 와인인 보졸레 누보를 함께 즐기는 행사다.
포도주 시음과 프랑스산 치즈와

다과 등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샹송과 댄스, 시낭송, 프랑스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 샹송 CD, 도서, DVD 등을 증정하는 행운권 추첨, 보졸레 누보상 선정 등 이벤트도 대기중이다.
예약은 오는 12일까지며 참가비는 1만7000원이다. 문의 062-527-2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AMMA MIA!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

가맹점 모집
*점포창업 준비하는 분들의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전두부 장점: 사포닌 전두부, 식이섬유 전두부, 레시틴 전두부, 이소플라본 전두부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비교분석
초보자 창업, 소자본 창업, 고수익 창업
오른 기능 지역: 광주, 순천, 목포, 여수, 전주, 익산, 군산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미화특수방수 ENG 방수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